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로지 니르바나를 향해 가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14일)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이태원 참사 한 달 불교, 아픔 보듬다

조계종 사노위, 11월 28일 대통령실 앞서 기도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유가족 공간마련 촉구 서한 제출
시민대책 위원회 구성 모임 동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도 주장해
이웃종교와 함께 12월 16일 49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애도는 끝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국가와 정부는 상실감에 빠진 유가족들이 서로 공감하며 슬퍼하고, 위로할 추모공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에도 진실규명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노위는 11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직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 희생자 추모와 희생자 가족 의견 존중 및 소통 공간 마련 촉구 기도회' 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기도회에서 사노위는△희생자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위로와 슬픔을 나누며 진실규명을 비롯한 대책을 숙의하고 소통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많은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나 참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주머니 속에 바늘과 같아서 변명하고 회피하며 무마하려고 할수록 그 바늘 끝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제도가 고쳐지고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되는 날까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도회 후, 사노위원 혜문 스님과 동신 스님이 대표로 요청사항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행진하면서 재발방지 촉구를 다시 한 번 외쳤다. 기도회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 기도로 마무리됐다.

사노위원 혜문 스님은 "스님들의 지극한 염불소리와 행진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부상자, 사고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참사 직후인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이후 마련된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공간' 을 찾아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사노위원 스님들은 희생자의 넋을 기릴뿐 아니라 부상당한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도 해 추모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11월 9~11일에는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들의 소통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포함해 스님 14명은 사흘동안 서울 조계사에서 남대문 경찰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희생자 추모 뿐 아니라 가족과 국민의 분노, 슬픔,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사노위는 12월 16일 오후 6시 참사 현장에서 49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이날 49재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동참, 각 종교에 맞춰 추모기도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 등을 통한 연대도 실시한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노위 자체적인 활동에서 범위를 넓혀 앞으로 구성될 시민대책위나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등을 구심점으로 뜻을 모아 활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자들도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불교중흥 중심에는 포교가 있다" 한국불교 전법포교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출 · 재가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제34회 포교대상 대상(종정 표창)은 문화 · 뉴미디어 포교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수상했다. 정념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만 가지가 다 살아가면서 포교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불교 중흥 중심에는 포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시상식 직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종상 · 정여 스님 선출

12월 1일 원로회의 제71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전형 통과
의장 · 부의장 선출 건 차기 이월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종상 스님과 정여 스님이 새롭게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1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71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원로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신임 의원 선출이 이뤄짐에 따라 조계종은 총 20명의 원로의원을 갖추게 됐다.

종상 스님은 1969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각연사와 기림사, 영혜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여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조계종 법규위원, 부산불교회관 관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이다.

원료회의는 이날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논의하고 총 32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성학 스님, 성운 스님, 진관 스님, 기연 스님(직할교구) △현일 스님, 종성 스님(법주사) △중하 스님, 성연 스님(마곡사) △정휴 스님, 법보 스님, 효담 스님, 청안 스님(직지사) △돈명 스님(은해사) △대운 스님, 동봉 스님(해인사) △혜문 스님(범어사) △운성 스님, 지정 스님, 명신 스님, 법진 스님(통도사) △수인 스님(백영사) △영진 스님, 현전 스님, 영명 스님, 무상 스님(송광사) 등 25명이다. 명사 법계 품서 대상자는 △진흥 스님, 지견 스님, 재호 스님(직할교구) △희원 스님(법주사) △선공 스님, 도문 스님(이상 수덕사) △지우 스님(직지사) 등 7명이다.


종상 스님


정여 스님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종단 안팎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때"라며 "원로 스님들이 특출한 지혜를 모아 종단의 미래를 위한 불사에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탄없는 고견과 지도를 청하며 "겨울 추위를 녹이는 수행력과 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원력으로 후학들의 지남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종교편향 대응 등에 대한 현안과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이날 안건에 올라왔던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은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임은호 기자

천태종, 내년도 일반예산 346억 원 확정

11월 28~30일 제120차 정기종의회서 결의

천태종이 2023년도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예산을 346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세운)는 11월 28~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20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천태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2023년도 예산은 345억 9,400여 만 원으로 올해 일반예산에 비해 약 5%(13억 원) 증가했다. 유가인상, 관리비 인상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 심의에 이어진 '기타 및 토의사항' 에서 종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종단 현안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토론했다. 종의회는 이번 종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문건으로 한 달 이내에 회신해 주길 요청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도용종정예하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남도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책임질 줄 알아야 육체도 책임질 수 있고, 보살행도 행할 수 있게 된다"며 "종의회를 무사히 잘 마쳐줘서 감사하다. 각자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 종단 발전의 주춧돌이 돼 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신성민 기자

